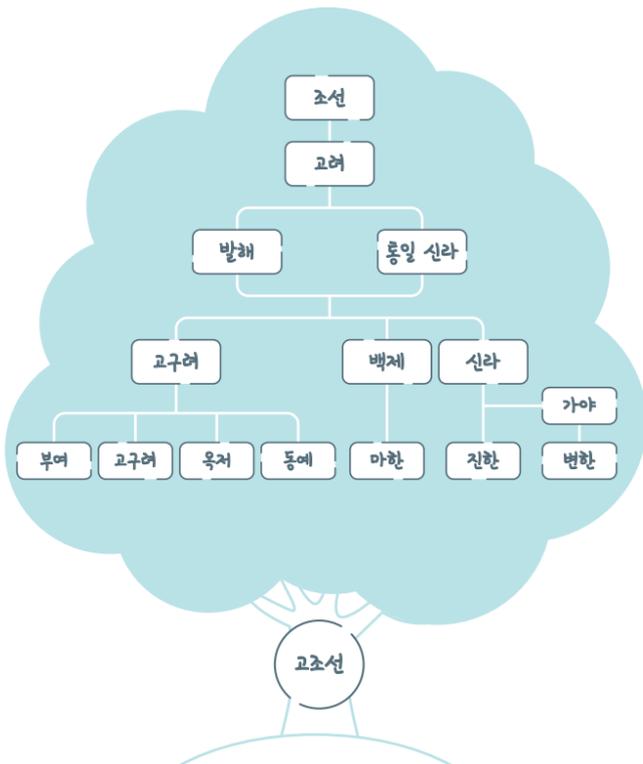


I 전근대 한국사의 이해

학습 목표

- 01 고대 국가의 성립과 발전 과정을 파악하고, 통치 체제의 특징과 발전 상황을 이해할 수 있다.
- 02 고대 국가의 종교와 사상을 살펴보고, 그 정치적·사회적 기능을 설명할 수 있다.
- 03 고려 시대 통치 체제의 성립과 변화를 국제 질서의 변동과 연결 지어 파악하고, 그 특징을 설명할 수 있다.
- 04 다원적인 사회 구조와 다양한 사상적 기반 위에서 고려 사회가 전개되었음을 이해할 수 있다.
- 05 조선의 정치 변화와 국제 질서의 변동 내용을 파악하고, 그 과정에서 나타난 세계관의 변화를 이해할 수 있다.
- 06 양난 이후 상품 화폐 경제의 발달과 그에 따른 사회 신분 질서의 변동을 파악하여 설명할 수 있다.



01

고대 국가의 지배 체제



성 안에서 왕의 즉위식을 거행한다는군.

음! 드디어 나라가 세워지나 봐.

나라? 나라를 세우면 좋은 점이 있을까?

(가)

- ㉠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한다니까 우리 백성들이 모두 잘살도록 보살펴 주지 않을까?
- ㉡ 틈만 나면 쳐들어오는 야만족을 이제는 물리칠 수 있을 것 같네.
- ㉢ 너무 기대하지 마! 나라는 늘어난 백성을 효율적으로 통치하는 조직에 불과해.

Q '국가'의 역할을 생각해 보고, (가)에 들어갈 적절한 내용을 ㉠~㉢에서 선택하거나 자신의 의견을 적은 후 그 까닭을 말해 보세요.

1 국가는 어떻게 형성되었을까?

●●● **주제 열기** 인류 문명은 도구의 발달과 함께 진보해 왔다. 사냥이나 농경 또는 생활의 편리함을 위한 도구부터 정복 활동에 사용된 무기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도구의 등장과 발전은 인류가 살아온 삶의 궤적을 보여준다.

그 궤적 속에서 인구가 꾸준히 증가하였고, 사회 규모가 확대되면서 국가도 등장하였다. 국가는 어떻게 형성되었을까?

선사 문화의 발달

인류가 출현하여 살아온 대부분 시간은 문자 기록이 없는 선사 시대이다. 선사 시대는 도구의 제작 기법에 따라 구석기 시대, 신석기 시대 등으로 구분된다.

구석기인은 주먹도끼 등 뿔석기를 만들어 사용하면서 채집과 사냥으로 생활하였고, 더 나은 삶의 환경을 찾아 오랜 세월 끊임없이 이동하였다. 또한 무리 지어 살면서 언어를 사용해 협동력을 높이고, 서로 떨어져 생활하는 무리와 경험이나 문화를 공유하였다. 한반도 일대에서도 구석기 문화가 수십만 년 동안 이어져 왔다. 도구가 더욱 정교해지면서 후기에는 스펀지찌르개와 같은 이음 도구가 사용되었다.

구석기 시대 말부터 기온이 올라 해수면이 상승하였고, 1만 년 전 무렵에는 한반도의 환경도 오늘날과 비슷하게 변하였다. 인류가 이러한 환경 변화에 적응해 다양한 간석기와 토기를 만들어 사용하면서 신석기 시대가 전개되었다.

신석기인은 농경과 목축을 시작하여 스스로 식량을 생산하였다. 이와 더불어 정착 생활이 이루어지고 인구도 늘어났다. 한반도 일대에 살던 신석기인은 주로 강가나 바닷가에 마을을 이루고 살면서 부족을 형성하였다. 신석기 시대의 부족 사회는 함께 생산하고 나누는 평등한 공동체였다.

계급의 발생과 국가의 출현

신석기 시대 말에서 청동기 시대로 이어지면서 농업 생산력이 늘고 사회 구조가 변화하였다. 잉여 생산물이 발생하면서 토지와 생산물에 대한 사유 개념이 나타나 빈부 차이가 생겼다. 더 많은 식량과 농경지를 확보하기 위한 집단 간의 다툼이 빈번해졌고 정복 활동도 활발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점차 계급의 분화가 뚜렷해지고 막강한 권력과 경제력을 가진 지배자가 등장하였다. 다양한 청동기와 거대한 고인돌은 당시 지배자가 누렸던 권력과 부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세력이 강한 집단의 지배자는 친손 사상을 내세워 주변 집단을 통합하였다. 사회 집단의 규모가 점차 커지는 가운데 일정한 정치 조직을 갖춘 국가도 출현하였다. 고조선은 청동기 시대에 등장한 우리 역사상 최초의 국가이다.

사회 변동은 철제 농기구와 무기의 보급으로 더욱 촉진되었다. 농업 생산력이 비약적으로 증가하여 경제 기반이 확대되었고, 정복 활동도 더욱 활발해졌다. 이에 따라 교역이 확대되고, 사회 집단의 통합이 빠르게 진행되었다. 철기 문화를 바탕으로 만주와 한반도 일대에는 부여, 고구려, 삼한 등 여러 나라가 나타났다.

한편 철기 유적에서 발견되는 명도전 등 화폐나 경남 창원 다호리 유적의 붓은 중국과 교류가 활발하였고 한자도 사용되었음을 보여 준다. 중국과의 교류는 만주와 한반도 일대 여러 나라의 문화 발전에도 많은 영향을 주었다.

청동기 시대의 마을 복원 상상도

잉여 생산물과 농경지를 둘러싼 대립이 빈번해지자 청동기 시대 사람들은 방어에 유리한 구릉에 마을을 형성하고 그 주변에 도랑(환호)과 나무 울타리(목책)를 만들었다.

▶ 만주와 한반도 일대의 청동기-철기 시대
기원전 2000년~기원전 1500년에 만주와 한반도 일대에서 청동기 문화가 시작되었다. 철기 문화는 기원전 5세기경 시작되었다.



▶ 명도전(평북 위원) 중국의 화폐로 한반도에서도 발견되었다.

▶ 비파형 동검(중국 라오닝성, 왼쪽)과 세형 동검(충남 아산, 오른쪽) 비파형 동검은 만주와 한반도에 걸쳐 발견되는 청동기 시대의 대표적인 유물이다. 청동검은 철기 시대에 한반도 안에서 독자적인 세형 동검으로 발전하였다.



▶ 반달 돌칼(경기 여주) 곡식의 이삭을 추수할 때 사용된 농기구이다.



▶ 팔주령(전남 화순 대곡리)

▶ 주먹도끼(경기 연천 전곡리)

▶ 돌도끼(강원 양양 오산리)



▶ 스펀지찌르개(경남 밀양, 충북 단양)

▶ 탄화된 곡식(경남 진주 상촌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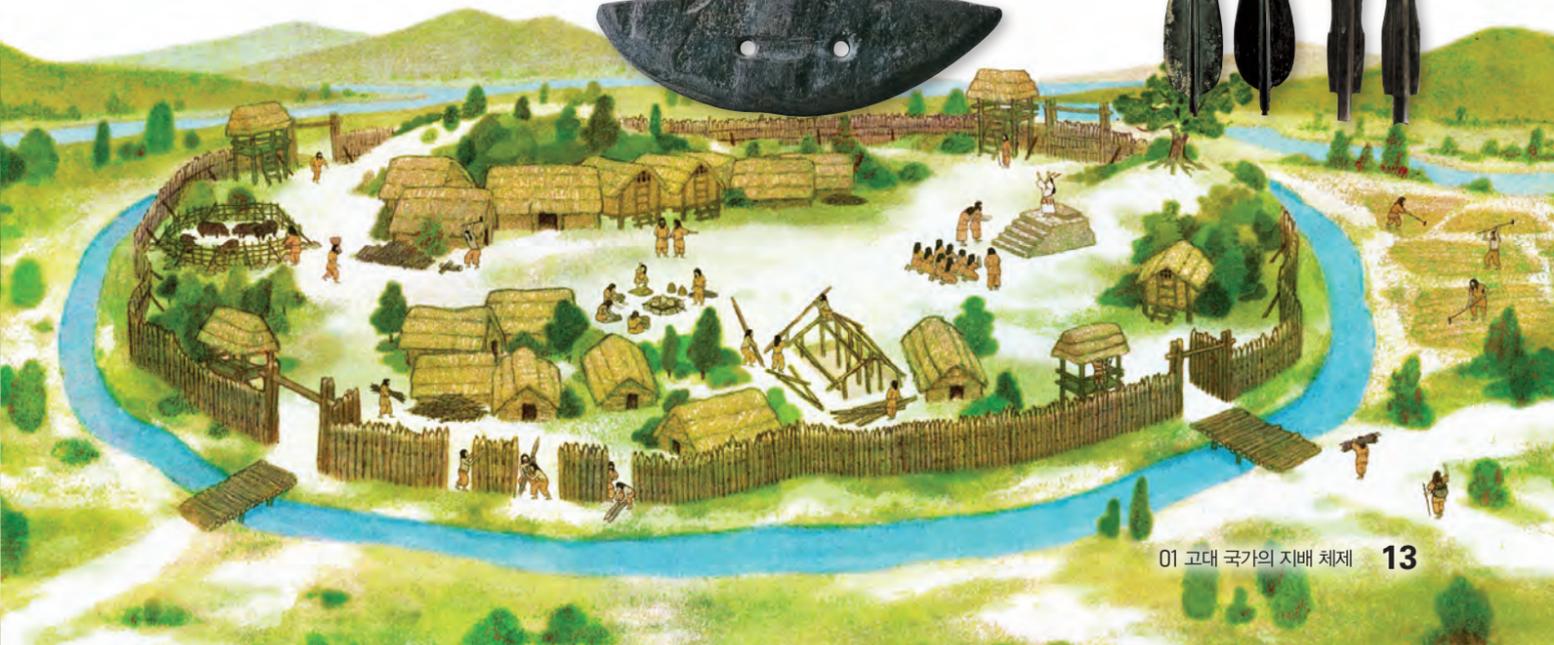
▶ 빗살무늬 토기(서울 암사동)



▶ 갈돌과 갈판(제주 고산리)



▶ 신석기 시대의 밭 흔적 (강원 고성 문암리)



우리 역사상 최초의 국가 고조선

고조선은 청동기 시대의 농경 문화를 바탕으로 성립하여 철기 시대까지 이어졌다. 『삼국유사』에 실려 있는 *단군왕검의 고조선 건국 이야기에는 환웅이 이끄는 집단과 곰을 토tem으로 하는 집단의 결합으로 이루어진 건국 과정과 지배 계급의 출현, 농경 사회의 모습 등이 반영되어 있다.

고조선은 라오닝 지방과 한반도 서북부 일대를 무대로 성장하였으며, 기원전 7세기경에는 중국에도 그 존재가 알려져 있었다. 국가 체제를 정비하고 철기 문화를 수용하며 발전하던 고조선은 기원전 4세기에 중국의 전국 7웅 가운데 하나인 연과 맞서다가 공격을 받아 서쪽 영토를 잃기도 하였다. 하지만 기원전 3세기에는 부왕에서 준왕으로 왕위가 세습되었고, 상(相)·대부(大夫)·장군 등 관직을 두었다. 이러한 사실은 고조선이 국왕을 중심으로 일정한 관직 체계를 갖추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고조선의 사회 모습은 8조법의 내용 등을 통해 짐작할 수 있다.*

새로 특특

8조법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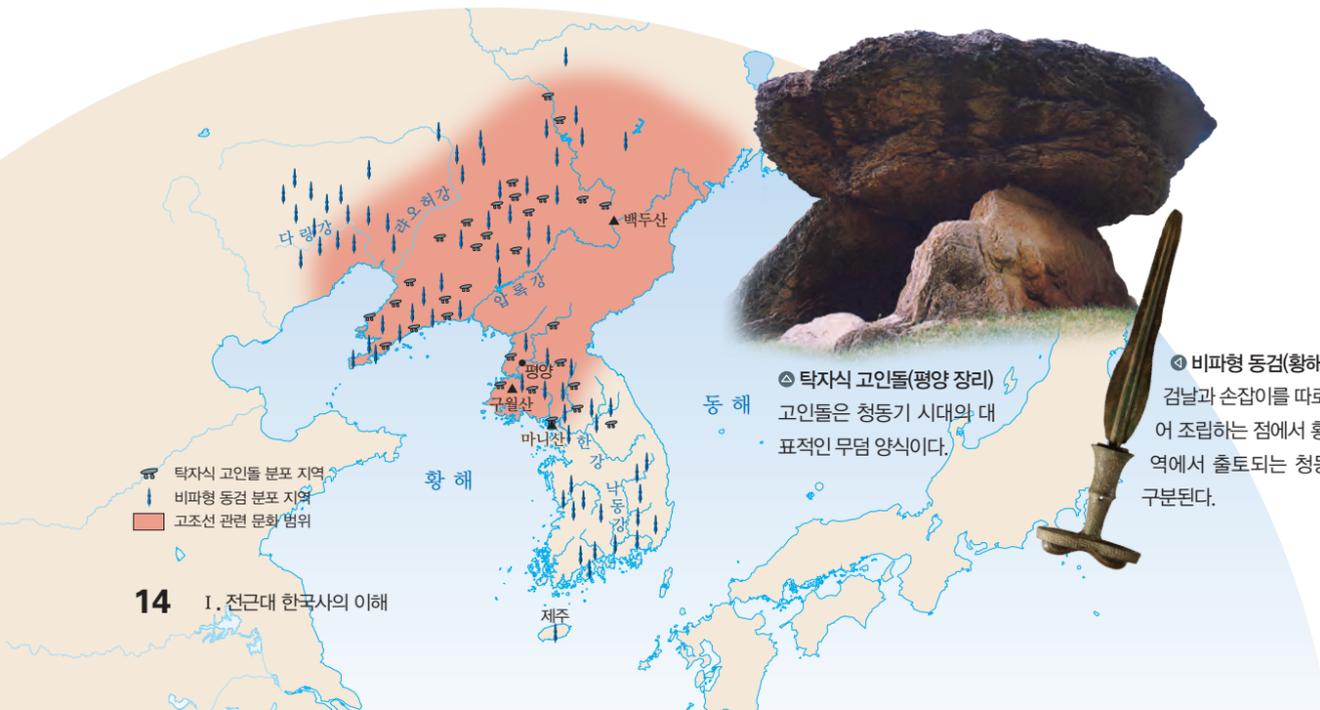
사람을 죽인 자는 즉시 죽이고, 남에게 상처를 입힌 자는 곡식으로 갚는다. 도둑질한 자는 노비로 삼는다. 이를 용서받고자 하는 자는 한 사람마다 50만 전을 내야 한다. …… 여자들은 모두 정숙하여 음란하고 편벽된 짓을 하지 않았다. - 『한서』 -

위 사료를 통해 추측할 수 있는 고조선 사회의 모습을 말해 보자.

중국의 진·한 교체기에 1천여 명의 무리를 이끌고 망명한 위만은 세력을 키워 준왕을 몰아내고 스스로 왕이 되었다(기원전 194). 그 후 고조선은 더욱 발전된 철기 문화를 기반으로 성장하면서 한반도 중남부의 진(辰)과 중국의 한(漢) 사이에서 중계 무역으로 이익을 얻었다. 그러나 한 무제의 침공을 받아 1년여간 항전했지만 결국 멸망하였다(기원전 108). 한은 고조선의 일부 지역에 낙랑군 등 군현을 설치하였다.

고조선 관련 유물

비파형 동검, 탁자식 고인돌의 분포 지역을 토대로 고조선 관련 문화 범위를 짐작할 수 있다.



▶ 탁자식 고인돌(평양 장리) 고인돌은 청동기 시대와 대 표적인 무덤 양식이다.

▶ 비파형 동검(황해 신천) 검날과 손잡이를 따로 만들어 조립하는 점에서 황해 유역에서 출토되는 청동검과 구분된다.

여러 나라의 성장

고조선의 멸망을 전후하여 만주와 한반도 일대에 부여, 고구려, 옥저, 동예, 삼한 등 여러 나라가 일어났다. 이들 나라는 한 군현과 교류하거나 항쟁하며 성장하였는데, 국가의 규모와 발전 단계에는 차이가 있었다.*

고조선 다음으로 출현한 부여는 1세기 초에 왕호를 사용하였으며, 중국과 외교 관계를 맺는 등 발전된 국가 체제를 갖추었다. 하지만 여러 집단이 연맹체를 이루고 있어서 왕은 중앙을 다스리고 마가, 우가, 저가, 구가를 비롯한 여러 가(加)들이 사출도(四出道)라고 불리는 지역을 관할하였다. 부여는 중앙 집권적 고대 국가로 발전하지 못한 채 5세기 말 고구려에 완전히 흡수되었다.

초기 고구려도 계루부, 소노부 등의 집단이 5부 연맹을 이루어 성장하였다. 부여와 마찬가지로 왕 아래 상가, 고추가 등의 가(加)들이 각자 관리를 거느렸고, 나라의 중대한 일은 제가 회의를 열어 결정하였다. 옥저와 동예는 읍락을 다스리는 읍군, 삼로 등의 지배자가 있었지만 왕은 없었고, 연맹체 국가로 성장하지 못한 채 고구려에 흡수되었다.

한반도 중남부의 마한, 진한, 변한 등 삼한에는 수십 개의 소국이 존재하였다. 가장 유력한 소국인 목지국의 지배자가 왕으로 추대되어 삼한을 주도하였지만, 소국들의 독립성이 강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세력 크기에 따라 신지, 읍차 등 정치적 지배자가 있었고, 이와 별도로 제사장인 천군과 신성 지역인 소도가 있었다. 천군과 소도의 존재는 삼한이 제정 분리 사회였음을 보여 준다.

철기 문화가 발달하면서 삼한 사회도 변화하였다. 마한은 한강 유역에서 일어난 백제에 통합되었고, 진한에서 사로국, 변한에서 구야국이 일어나 각각 신라와 가야로 성장하였다.



▶ 오녀산성(중국 라오닝성 환린) 고구려의 첫 번째 도읍지인 졸본성으로 추정된다.



▶ 부여 금제 허리띠 장식 (중국 지린성 위수)

▶ 진한의 호랑이 모양 띠고리(경북 영천)

▶ 여러 나라의 성장

새로 특특

고구려와 부여에 대한 중국의 상반된 기록 *

- (고구려) 큰 산과 깊은 골짜기가 많고 넓은 들은 없다. 좋은 전지(田地)가 없어 부지런히 농사를 지어도 식량이 넉넉하지 못하다. 사람들의 성품이 흉악하고 급해서 노략질하기를 좋아한다.
- (부여) 사람들 체격이 매우 크고 성품이 강직 용맹하며 근엄하고 후덕해 다른 나라를 노략질하지 않는다.

- 『삼국지』 위서 동이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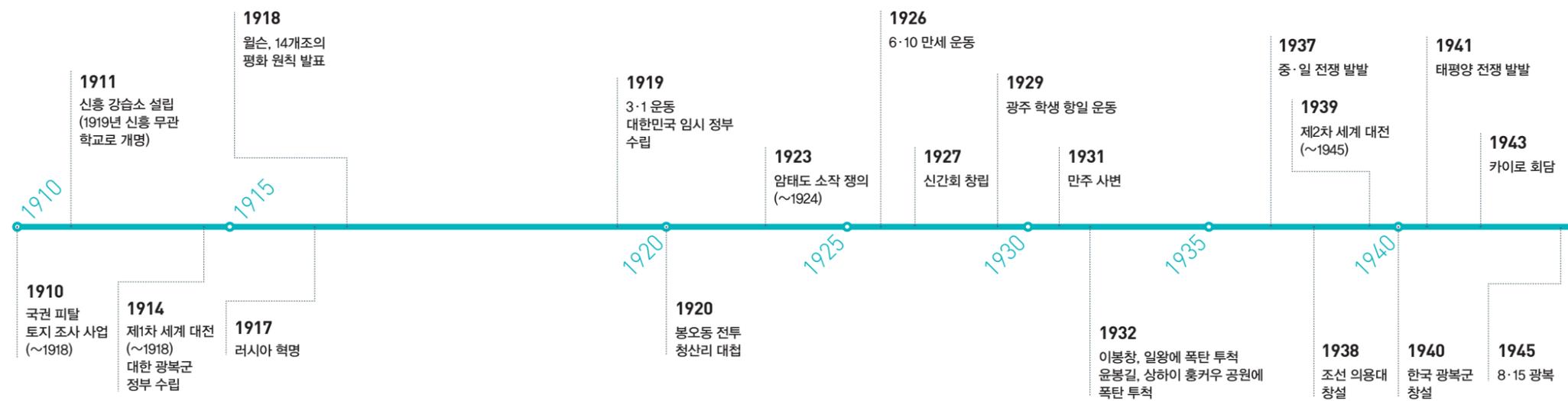
① 중국이 두 나라에 대해 상반된 기록을 남긴 까닭은 무엇일까?



III

일제 식민지 지배와 민족 운동의 전개

- 01 일제의 식민지 지배 정책
- 02 3·1 운동과 대한민국 임시 정부
- 03 다양한 민족 운동의 전개
- 04 사회·문화의 변화와 사회 운동
- 05 전시 동원 체제와 민중의 삶
- 06 광복을 위한 노력



3·1 만세도(독립기념관)
1919년 3월 1일 탑골 공원에서 학생과 시민이 모여 독립 선언서를 발표한 후 거리에 나가 '대한 독립 만세'를 외쳤다. 이렇게 시작된 만세 시위는 전국으로 확산되었다.

III 일제 식민지 지배와 민족 운동의 전개

학습 목표

- 01 제1차 세계 대전 전후 세계정세의 변화를 살펴보고, 일제의 식민 지배 정책의 변화와 식민지 수탈 정책의 내용을 파악할 수 있다.
- 02 3·1 운동과 대한민국 임시 정부 수립의 역사적 의미를 설명할 수 있다.
- 03 3·1 운동 이후 국내외에서 전개된 다양한 민족 운동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다.
- 04 사회 모습의 변화를 살펴보고, 다양한 사회 운동을 근대 사상의 확산과 관련지어 이해할 수 있다.
- 05 일제의 침략 전쟁 시기 식민지 통치 방식을 파악하고, 전시 동원 체제로 달라진 한국 민중의 삶을 설명할 수 있다.
- 06 민족 운동이 확대되어 간 내용과 광복을 앞두고 이루어진 건국 노력을 이해할 수 있다.



01

일제의 식민지 지배 정책



일제가 저 계단 위에 큰 궁궐 같은 것을 세웠던데.....

일본의 건국 신과 한국을 침략한 일왕 메이지의 위패를 봉안하기 위해 세운 신궁이래.

서울 남산에 세운 조선 신궁 일제가 한국 강점 이후 오랜 준비를 거쳐 1920년 기공식을 하고 1925년 준공하였다.

“남산 위에 저 소나무 철갑을 두른 듯, 바람서리 불변함은 우리 기상일세.”

온갖 풍상(風霜)에도 굴하지 않는 한국인의 기상을 드러낸 애국가 2절입니다. 이러한 기상은 줄기차게 일어난 항일 투쟁의 밑거름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일제는 남산의 한복판,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보이는 곳에 조선 신궁을 지었습니다. 한국 강점 직후부터 전국 곳곳에 신사(神社)를 지었는데, 조선 신궁은 그 중심에 있다고 할 수 있죠.

Q 당시 남산의 조선 신궁을 보았다면 어떤 기분이 들었을까요? 이를 세운 일제에게 하고 싶은 말을 적어 보세요.

제1차 세계 대전과 국제 정세의 변화

▼ 사라예보 사건(1914)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의 보스니아 합병에 반발한 세르비아 청년이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 황태자 부부를 암살하였다.



▲ 범게르만주의와 범슬라브주의

제1차 세계 대전(1914~1918)이 일어나다

일제가 한국을 강점한 1910년대에 세계사를 크게 뒤흔들어 놓은 제1차 세계 대전이 일어났다. 이 전쟁은 제국주의 열강의 식민지 쟁탈전에서 비롯되었다.

뒤늦게 식민지 경쟁에 뛰어든 독일은 아시아·아프리카에 많은 식민지를 둔 영국, 프랑스와 충돌하였다. 또한 러시아가 슬라브족의 단결을 내세우며 발칸반도로 세력을 뻗치자, 독일과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은 게르만족의 단결을 표방하며 이에 맞섰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라예보 사건이 터지자 유럽 열강은 이해관계에 따라 편이 나뉘어 총력전을 벌였다. 팽팽하던 전쟁은 미국이 참전하면서 영국, 프랑스가 주축이 된 연합국의 승리로 막을 내렸다.

제1차 세계 대전으로 국제 질서가 변화하다

제1차 세계 대전은 탱크가 등장하고 독가스가 사용되는 등 이전의 전쟁과 다른 양상으로 전개되었다. 그 결과 엄청난 인명 피해와 시설 파괴가 발생하면서 평화를 갈망하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국제 질서도 변화하였다. 독일 등 패전국이 식민지를 잃고 경쟁에서 밀려난 반면, 미국과 일본은 경제 호황을 누리며 강대국으로 떠올랐다. 미국은 국제 사회에서 영향력이 커졌고, 일본은 독일의 중국 내 이권을 차지하는 등 세력을 넓혔다.

민족 자결주의
 각 민족은 자신의 정치적 운명을 스스로 결정할 권리가 있으며, 이 권리는 다른 민족의 간섭을 받지 않는다는 내용이다. 하지만 이 원칙은 승전국의 식민지에는 적용되지 않았다.



▲ 독가스에 대비해 방독면을 쓴 병사 제1차 세계 대전은 파괴력이 큰 신무기가 동원되어 900만여 명이 사망하고, 2,200만여 명이 부상을 입는 인명 피해가 발생하였다.

한편 전후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 열린 파리 강화 회의는 미국 대통령 윌슨이 제시한 14개조 평화 원칙을 토대로 논의가 진행되었다. 그 원칙 가운데 민족 자결주의는 식민지 약소민족의 민족 해방 운동에 큰 영향을 주었다.

러시아 혁명, 최초의 사회주의 국가가 등장하다

제1차 세계 대전이 막바지에 이르렀을 때 러시아에서 혁명이 일어나 차르의 전제 정치가 무너졌다(1917). 레닌이 이끄는 혁명 정부는 토지의 사유 폐지, 주요 시설의 국유화 등 사회주의 개혁을 추진하였다. 나아가 일본, 미국 등 제국주의 열강의 지원을 받던 반혁명 세력을 몰리치고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소련)을 수립하였다(1922).

소련의 등장으로 제국주의 열강이 주도하던 국제 질서에 변화가 일어났다. 레닌은 '민족 자결의 원칙'을 내세우며 제국주의의 수탈에 신음하는 식민지 약소민족의 민족 해방 운동을 지원할 것을 약속하였다. 반제국주의를 내세운 사회주의 사상은 열강의 침략과 지배에 시달리던 아시아 지역의 지식인과 청년들에게 많은 영향을 주었다.

① 러시아의 사회주의 혁명을 풍자한 그림 레닌이 붉은 빗자루로 왕과 귀족, 자본가를 지구에서 쓸어버리고 있다.



민족 자결의 원칙
 사회주의자들은 보상 없는 무조건적이고 즉각적인 식민지의 해방(민족 자결권의 인정)을 요구해야 할 뿐만 아니라…… 그들을 억압하는 제국주의 세력에 대한 저항을 지원해야 한다.
 - 레닌, 『사회주의 혁명과 민족 자결권 테제』(1916)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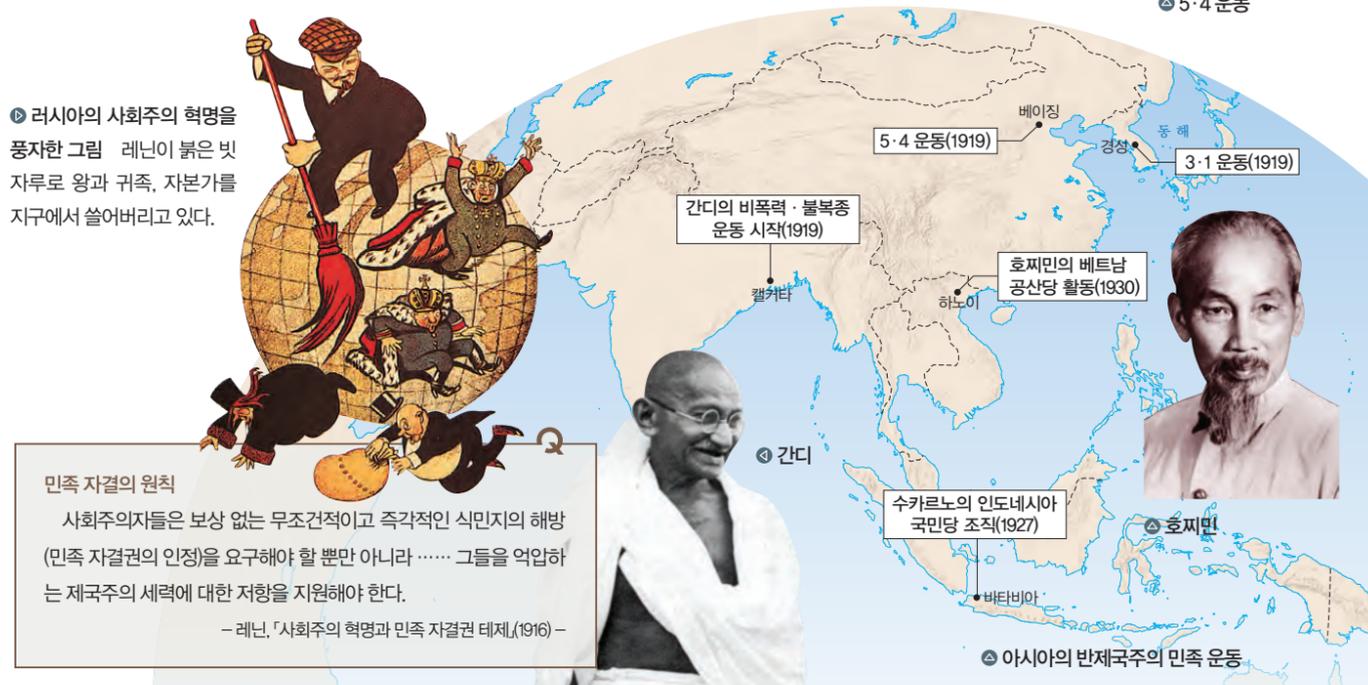
반제국주의 민족 해방 운동이 활발해지다

제1차 세계 대전의 참혹한 결과는 인권의 소중함을 일깨우는 계기가 되었다. 유럽에서는 보통 선거가 확대되고 노동자의 권리가 신장하는 등 민주주의가 발전하였다. 독일, 오스만 제국 등에서는 제정이 무너지고 공화정이 수립되었다. 하지만 제국주의 열강의 지배를 받는 식민지 민중은 인간의 기본권을 보장받지 못한 채 차별과 억압에 시달려야 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식민지 약소민족의 반제국주의 민족 해방 운동이 거세게 일어났다. 한국의 3·1 운동은 그 선구적 역할을 하였고, 인도에서는 비폭력·불복종 저항을 내세운 간디의 주도로 반영 운동이 본격화되었다.



▲ 5·4 운동



▲ 아시아의 반제국주의 민족 운동

2 무단 통치와 수탈 체제의 확립

이전부터 불순하고 악한 무리가 원근에 출몰하여 나라를 어지럽힐 계책을 기도하고, 소요를 일으키는 자가 있다. 이 때문에 제국 군대는 각도의 주요 지점에 주둔하여 유사시의 변란에 대비하고, 헌병 경찰은 서울과 지방에 널리 퍼져 치안에 종사하며, 함부로 망상을 일으켜 정무를 방해하는 자가 있으면 결단코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 초대 조선 총독 데라우치 마사타케 취임사, 1910 -

●●● 주제 열기 일제는 한국 강점 후 군대와 헌병 경찰을 앞세워 무단 통치를 실시함으로써 한국인의 저항을 억누르고, 안정적인 식민지 수탈 체제를 구축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1910년대 일제는 어떠한 정책을 실시하였을까?



● 경성 헌병대원과 경기도 경무부원

조선 총독부, 절대 권력을 휘두르다

한국을 강점한 일제는 통치 기구로 조선 총독부를 설치하였다. 조선 총독은 입법·행정·사법권과 군 통수권을 포함한 절대 권력을 가졌고, 일왕에게 직속되어 일본 의회나 내각의 통제를 거의 받지 않았다. 조선 총독에는 육·해군 대장이 임명되었는데, 이는 한국인의 저항을 억누르고 장차 대륙을 침략하려는 의도가 반영된 것이다. 일제가 한국인을 정치에 참여시킨다는 구실로 설치한 *중추원은 친일 매국노로 구성되어 한국인의 의사를 대변할 수 없었다.

35년간 이어진 일제의 총독부 지배 체제에서 대다수 한국인은 정치적·경제적 권한을 억압당하였다. 이로 인해 근대 국민 국가의 수립은 지연될 수밖에 없었다.

헌병 경찰을 동원하여 무단 통치를 실시하다

일제는 헌병 경찰제를 실시하여 현역 군인인 헌병 사령관을 경찰 최고 책임자인 경무 총감으로 임명하고, 헌병 분대와 파출소, 경찰서와 주재소 등을 두어 한국인을 감시, 억압하였다. 전국 곳곳에 배치된 헌병과 경찰은 한국인의 사소한 일상생활에도 관여했으며, 즉결 처분권을 가져 태형 등의 형벌을 가하였다.

이 밖에도 한국인의 저항을 누르기 위해 일본군 2개 사단 병력을 전국 주요 도시에 배치하였다. 관리와 교사도 제복을 입고 칼을 차고 다녔는데, 이는 폭력적이고 위압적인 무단 통치의 모습을 잘 보여 준다.



● 1910년대 칼을 찌고 앉아 있는 교사와 학생

자료 지식백과 경찰범 처벌 규칙과 조선 태형령



경찰범 처벌 규칙

제1조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구류 또는 벌금에 처한다.
 19. 함부로 대중을 모아 관공서에 청원 또는 진정을 한 자
 32. 경찰 관서에서 특별히 지시 또는 명령한 사항을 위반한 자
 49. 전선에 근접하여 연을 날리는 자
 50. 석전(石戰) 등 위험한 놀이를 하거나 시키는 자, 또는 길거리에서 공기총류나 활을 가지고 놀거나 놀게 시키는 자
 - 『조선 총독부 관보』 호외, 1912. 3. 25. -

조선 태형령

제11조 태형은 감옥 또는 즉결 관서에서 비밀리에 행한다.
 제13조 본령은 조선인에 한하여 적용한다.
 시행 규칙 1조 태형은 수형자를 형판 위에 엎드리게 하고 그자의 양팔을 좌우로 벌리게 하여 형판에 묶고 양다리도 같이 묶은 후 불기 부분을 노출시켜 태로 친다.
 - 『조선 총독부 관보』, 1912. 3. 18. -

① 일제가 이와 같은 법령을 시행한 까닭을 설명해 보자.

자유를 억압하고 식민지 노예 교육을 강요하다

일제는 한국인의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를 억눌렀다. 『황성신문』, 『대한매일신보』 등 신문과 역사서 및 잡지의 출판이 금지되었고, 대한 협회 등 계몽 단체도 해산당하였다.

또한 우민화 교육을 실시하여 한국인을 식민 지배에 순응하게 하고 노동력을 마음껏 이용하려고 하였다. 이를 위해 교육 체계를 보통 교육과 실업 교육 위주로 편성하였고, 사립 학교, 서당 등의 민족 교육을 철저히 억압하였다.

*4학년 기준

수신	국어	조선어, 한문	창가, 체조	수학	
1	7	3	3	4	
역사	지리	실업	수공	습자	영어
1	1	5	3	1	2

(『한국 근대 교육사』, 1971)

● 한국인 중등학교의 교과별 수업 시간(1911~1922) 국어(일본어)와 노동력 이용을 위한 실업, 수공 시간이 많다.

토지 조사 사업(1910~1918), 식민지 수탈의 토대가 되다

일제의 토지 조사 사업은 전국의 토지 소유권을 확인하여 식민지 지배에 필요한 재정을 확보하고, 일본인이 쉽게 토지를 차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시행되었다. 토지 소유권을 인정받으려면 정해진 기간 내에 신고하여야 했는데, 복잡한 절차나 서류 미비 등으로 기한 내에 신고하지 못하여 소유권을 잃는 경우도 있었다.

토지 조사 사업의 결과 총독부는 지세 수입이 크게 늘었고, 미신고 토지나 국·공유지를 차지하였다. 동양 척식 주식회사와 일본인은 총독부가 차지한 토지를 헐값에 넘겨받거나 농민의 어려운 처지를 이용하여 토지를 대량으로 사들였다.

반면 한국 농민 중에는 소작농으로 전락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또한 지주의 소유권만 인정되고 농민의 경작권 등 관습적인 권리는 보호되지 않았기 때문에 소작농은 영구 경작권을 잃고 고율의 소작료 등 불리한 조건으로 지주와 계약하였다. 살기 어려워진 농민은 화전민이 되거나 만주, 연해주 등지로 이주하였다.

● 한국 내 일본 농민의 증가

일본인 농사 경영자는 1909년 692명에서 1915년 6,969명으로 증가했고, 토지 소유 면적도 약 4배 증가하였다.



● 식민지 경제 수탈의 상징, 동양 척식 주식회사 1908년 일제가 토지와 자원을 수탈할 목적으로 설립한 국책 회사로, 농민을 가혹하게 착취하였다.



▲ 간선 철도망과 주요 항만 경성(서울)을 중심으로 한 X자 형태의 간선 철도망으로 한국을 일본 경제권에 편입시켰고, 대륙 침략을 위한 발판이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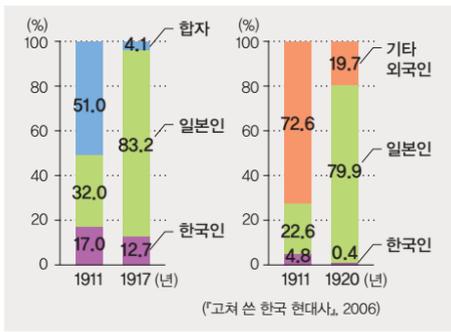
일본 자본주의, 땅속부터 바다까지 침탈하다

일제는 효율적인 식민지 경제 수탈을 위해 한국인의 자본 축적과 공업 발전을 억제하는 여러 법령을 제정하였다. 먼저 회사령(1910)을 공포하여 기업을 설립할 때 총독의 허가를 받게 하고, 총독의 명령만으로도 기업을 해산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한국인에게는 주로 소규모의 제조업, 매매업 등이 허용되었다.

또한 어업령, 광업령, 은행령 등의 법령을 제정하여 경제 활동을 허가제로 전환하고, 인삼에 대한 전매제를 실시하였다. 이로써 일제는 한국의 자원을 철저히 장악하여 수탈할 수 있었고, 민족 자본의 성장 가능성을 차단하였다. 임야 조사 사업도 실시하여 방대한 면적의 임야를 국유림으로 편입하였다.

일제는 철도, 도로, 항만과 통신망 등 기간 시설을 새롭게 건설하고 정비하였다. 이는 한국에 대한 정치적 지배를 강화하는 동시에 자국의 상품 시장을 확대하고, 한국의 식량·원료를 손쉽게 일본으로 가져가려는 의도였다. 결과적으로 한국인의 산업 활동은 크게 위축되었고, 한국 경제는 일본 자본주의 체제에 종속되었다.

▶ 일본의 경제 독점 현황 민족별 공업 회사 불입 자본액(왼쪽)과 광산 생산액(오른쪽)



탐 1910년대 일제의 경제 침탈

자료 1 토지 조사령(1912)

- 제1조 토지의 조사 및 측량은 본령에 의한다.
- 제4조 토지의 소유자는 조선 총독이 정하는 기간 내에 주소, 씨명, 명칭 및 소유지의 소재, 지목, 자번호, 사표, 등급, 지적, 결수를 임시 토지 조사 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자료 2 회사령(1910)

- 제1조 회사의 설립은 조선 총독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제6조 회사가 본령이나 본령에 의거하여 발하는 명령과 허가 조건에 위반하거나 또는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행위를 할 때, 조선 총독은 회사의 해산을 명할 수 있다.

활동

- 1 일제가 <자료 1, 2>의 정책을 실시한 목적은 무엇인지 각각 설명해 보자.
- 2 일제가 실시한 <자료 1, 2>의 정책에 반대하는 손 팻말의 문구를 작성해 보자.



3 민족 분열 통치와 경제 수탈의 확대

문화적 제도 혁신으로 조선인을 유도함으로써 조선인의 행복·이익의 증진을 도모하며, 장차 문화의 발달과 민력(民力)의 충실을 기하고, 정치상·사회상의 대우에 있어서도 내지인(內地人, 일본인)과 똑같이 취급을 해야 한다는 것이 궁극의 목적이며 이것이 달성되기를 간절히 바란다.

- 조선 총독 사이토 마코토, 「시정 방침 훈시(1919. 9.)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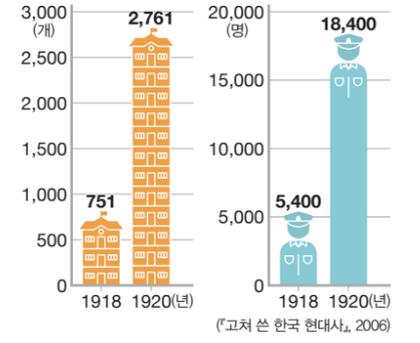
●●● 주제 열기 1919년 총칼을 앞세운 무단 통치의 억압을 뚫고 3·1 운동이 일어났다. 이에 놀란 일제는 무력만으로는 한국인을 효과적으로 지배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이른바 문화 통치를 들고 나왔다. 한국의 문화를 발전시키고 한국인도 일본인과 같은 수준으로 대우하겠다는 일제 식민 정책의 실상은 어떠하였을까?



기만적인 '문화 통치'를 실시하다

'문화 통치'를 표방한 일제는 가혹한 식민 통치를 은폐하기 위해 여러 가지 정책을 제시하였다. 먼저 조선 총독에 육·해군 대장만 임명하도록 한 규정을 바꾸어 문관도 임명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헌병 경찰 제도를 보통 경찰 제도로 전환하였다. 그러나 일제가 항복하여 물러날 때까지 문관 총독은 한 명도 임명되지 않았고, 경찰 관서와 인원, 비용은 3배 이상 늘어났다.

일제는 한국인에게도 참정권을 주고 지방 자치제를 실시하겠다고 선전하였다. 이는 독립운동을 자치 운동으로 유도하고 친일 세력을 양성하려는 것이었다. 따라서 조선 의회는 설립되지 않았고, 지방에 도 평의회, 부·군·면 협의회 등 자문 기구가 설치되었지만 의결권은 없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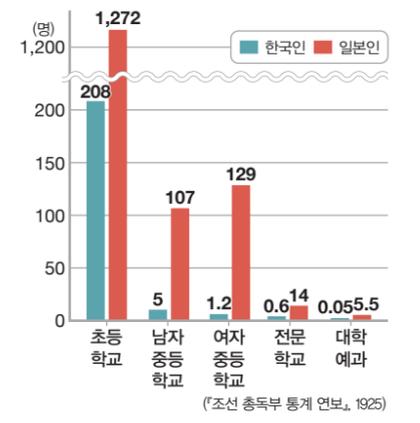


▶ 경찰 관서(왼쪽)와 경찰 인원 수(오른쪽)의 변화

허울뿐인 문화 정책

일제는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를 일부 허용하였다. 이에 따라 『조선일보』와 『동아일보』 등 신문이 발행되었다. 하지만 일제는 검열 제도를 강화하여 식민 통치를 비판하거나 민족의식을 고취하는 기사를 삭제하였고, 심한 경우에는 정간·폐간하였다. 집회나 단체 활동도 식민 지배를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만 허용하였다.

한편 일제는 보통학교와 고등 보통학교를 증설하였으며 수업 연한을 늘렸다. 하지만 보통학교조차 그 수가 많이 부족하였고 유상 교육이었다. 이에 한국인의 취학률은 매우 낮았고, 고등 교육을 접할 기회는 거의 없었다.



▶ 인구 1만 명당 취학 학생 수(1925)

사료 **특**

치안 유지법(1925)

제1조 국체(國體)를 변혁하거나 사유 재산 제도를 부인할 목적으로 결사를 조직하거나 그 사정을 알고 가입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함.

제7조 누구를 막론하고 본 법의 시행 구역 밖에서 범한 자에게도 역시 이를 적용함.

- 「조선 총독부 관보」, 1925. 4. 27. -

» 일제가 식민 통치를 부정하는 사회주의자나 독립운동가의 처벌을 규정한 법률로,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활동하는 경우에도 적용되었다.

‘문화 통치’의 본질은 무엇일까?

3·1 운동 이후 일제가 기만적인 ‘문화 통치’를 내세운 의도는 한국인의 강력한 저항과 나빠진 국제 여론을 무마하려는 것이었다. 관리·교원이 제복을 입고 칼을 차던 것을 폐지하는 등 외형적 변화가 있었지만, 한국인에 대한 감시와 탄압은 더욱 철저해졌다. 일제는 1군(郡) 1경찰서, 1면(面) 1주재소 제도를 확립하였고, 치안 유지법을 제정하여 독립운동가를 탄압하는 데 이용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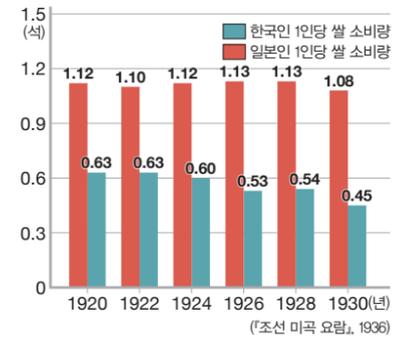
일제는 기만적인 ‘문화 통치’를 표방하면서 식민 통치에 협력하는 친일 세력을 양성하였는데, 특히 지식인, 자본가, 지주층을 적극 포섭하였다. 결국 ‘문화 통치’는 한국인을 이간·분열하여 독립운동을 약화시키고, 식민지 지배 체제를 공고히 하려는 민족 분열 통치였다.

산미 증식 계획(1920~1934), 쌀 생산은 늘었지만 농민은 굶주리다

일본에서는 제1차 세계 대전을 계기로 공업화가 진전되고 도시 인구가 크게 늘었지만, 농업 생산력은 이에 미치지 못하여 쌀 부족 현상이 심각해졌다. 이에 일제는 한국에서 산미 증식 계획을 실시하여 식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려 하였다.

품종 개량, 수리 시설 구축, 경지 정리와 개간 사업 등을 통해 쌀 생산을 늘려갔지만, 증산량은 계획한 목표에 미치지 못하였다. 그런데도 일제가 예정대로 쌀을 가져갔기 때문에 일본의 식량 사정은 개선되었지만, 한국의 식량 사정은 나빠졌다. 일제는 만주에서 조·수수·콩 등을 들여와 이를 보충하였다.

한국 농민은 높은 소작료와 지세, 공과금뿐만 아니라 비료 대금, 수리 조합비, 토지 개량비 등 쌀 증산 비용마저 부담하는 이중적 수탈 구조 속에 놓였다. 반면 토지 회사나 대지주는 농민의 곤궁한 처지를 이용하여 대농장을 더욱 넓혀 갔다. 그 결과 자작농 중 많은 수가 소작농이 되거나 화전민·도시 빈민으로 전락하였고, 만주나 연해주, 일본 등지로 이주하기도 하였다.



④ 한국인과 일본인 쌀 소비량



⑤ 수리 조합비 납부에 허덕이는 농민의 모습을 풍자한 만평(『동아일보』, 1926. 12. 7.)

일본 자본이 밀려들다

일본은 제1차 세계 대전 때 유럽과 아시아로 수출한 공업 제품의 양이 크게 늘어 경제 호황을 누렸다. 축적된 자본을 바탕으로 한국에 진출하여 값싼 자원과 노동력을 활용하려는 일본 기업이 늘어나자, 조선 총독부는 회사령을 폐지하여 회사 설립을 신고제로 전환하였다(1920). 이에 따라 한국인이 기업을 설립하는 경우도 늘어났지만, 규모나 자본이 일본 기업에 비해 매우 영세하였다. 더욱이 1923년 일본 상품에 대한 관세가 폐지되어 값싼 일본산 제품이 밀려오면서 한국인 소유의 기업은 큰 타격을 입었다.

1920년대 후반에는 미쓰이, 미쓰비시, 노구치 등 일본 재벌 기업이 한국에 본격적으로 진출하였다. 이들 기업은 지하자원이 풍부한 북부 지방에 큰 공장을 세워 자원과 인력을 적극 수탈하였다.



⑥ 한국 내 본점을 둔 회사의 자본금 비교

⑦ 흥남 조선 질소 비료 공장 일본 노구치 재벌이 1927년 설립하였다.

탐 **‘문화 통치’의 실상**

자료 1 사이토 총독의 시정 방침

총독은 문무관 어느 쪽이라도 임용될 수 있는 길을 열고, 나아가 헌병에 의한 경찰 제도를 바꿔 보통 경찰에 의한 경찰 제도를 채택할 것이다. 그리고 복제를 개정하여 일반 관리·교원이 제복을 입고 칼을 차던 것을 폐지하고, 조선인의 임용·대우에 더 많이 고려하고자 한다.

- 「조선 총독부 관보」, 1919. 9. 4. -

자료 2 조선 민족 운동에 대한 대책

- 친일 인사가 각 종교 단체 지도자가 되도록 후원한다.
- 수재 교육을 명목으로 친일 지식인을 많이 양성한다.
- 조선인 부호들과 민중을 대립하게 하고, 이들에게 일본 자본을 공급해 친일화한다.
- 각종 친일 단체를 조직하고 후원한다.

- 조선 총독부, 「사이토 마코토 문서」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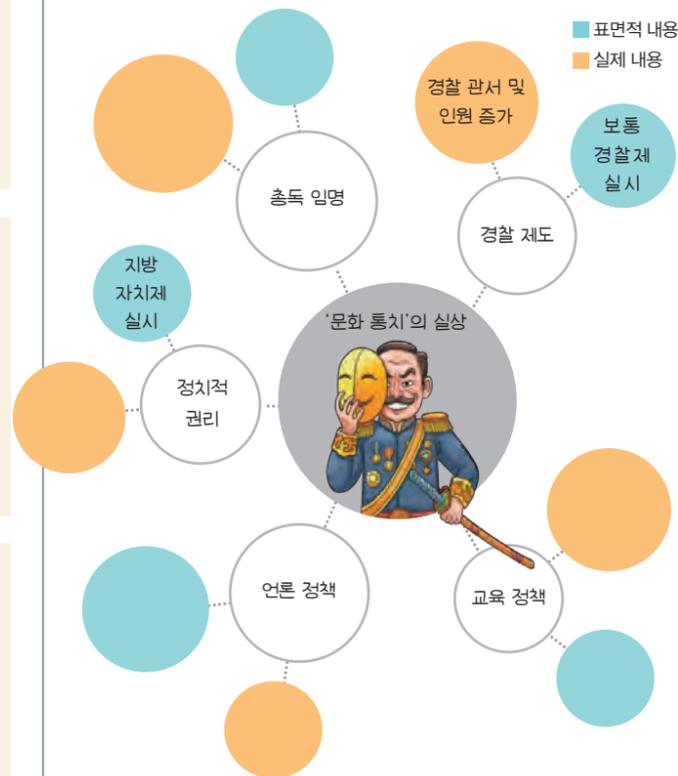
자료 3 조선 통치 방침

일시동인(一視同仁)의 성의(聖意, 일왕의 의지)에 기초하여 공명정대한 정치를 행하고 선량한 민중을 애호함과 동시에 다만, 국헌에 반항하고 병합의 정신에 어긋나는 등의 불령(不逞)의 무리에 대해서는 추호도 가차 없이 단속하는 방침으로 나간다.

- 조선 총독부, 「조선 통치 방침」 -

활동

1 (자료 1~3)과 본문을 참고하여 마인드맵을 완성해 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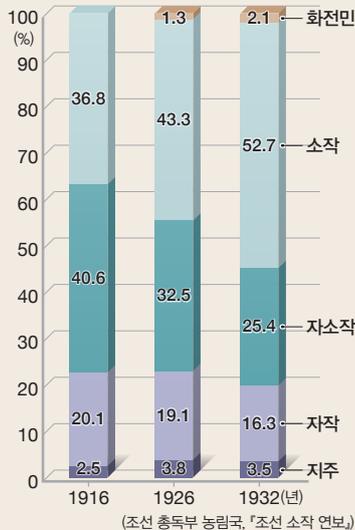


2 (자료 1~3)을 보고 ‘문화 통치’를 비판하는 게시글을 작성해 보자.

1920년대 농민의 처지

일제가 실시한 산미 증식 계획의 결과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빠른 속도로 농민 분해가 일어났다. 아래 그래프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1916년부터 1932년까지 자작농과 자소작농을 합친 농가의 비율은 30% 정도 감소한 반면, 소작농의 비율은 40% 이상 증가하였다.

이 과정에서 대다수의 한국 농민은 생존권을 위협받는 상황에 내몰렸다. 당시 농민의 생활을 살펴보자.



▲ 일제 강점기 농민의 계층별 구성

지주와 소작농

(『동아일보』, 1924. 11. 28.)



자료 1

고을 소작료를 못 내서 경찰에 끌려가는 농민

(『조선일보』, 1924. 1. 1.)



*야가마시: '시끄럽다.'라는 뜻의 일본어

자료 2

일본 이민자에 쫓겨 이주하는 농민들

(『동아일보』, 1924. 4. 25.)



자료 3

가혹한 소작료

요즘 군 내에 있는 지주 중에 몇 명만 빼고는 대부분 가혹한 소작료를 받는데 대개는 일본인 지주가 많다. 일본인에 전염되어 비교적 후하던 조선인 지주들도 불과 몇 해 만에 돌변하여 소작인에게 가혹한 태도를 취하는 것은 일본인 지주가 생긴 이후부터라고 한다.

- 『동아일보』, 1925. 2. 22. -

자료 4

생산비에 못미치는 판매 대금

약 300평의 논을 소유하고 농사를 짓는 자작농은 쌀 판매 대금으로 19원 39전을 벌었지만, 비료 대금과 수리 조합비로 21원 80전을 지출하였다고 한다. 수입과 지출을 비교하면 2원 41전이 부족하다. 이 조사 자료는 그나마 쌀값이 비쌀 때를 기준으로 작성한 것이다.

- 『동광』, 1931. 4. -

자료 5

활동

- 1 <자료 1~3>의 만평이 보여주는 1920년대 농민의 처지를 설명해 보자.
- 2 <자료 1~5>를 참고하여 당시 농민의 처지를 주제로 대본을 작성하여 역할극을 해 보자.

등장인물 | 한국인 농민(소작농), 한국인 지주, 일본인 지주, 일제 경찰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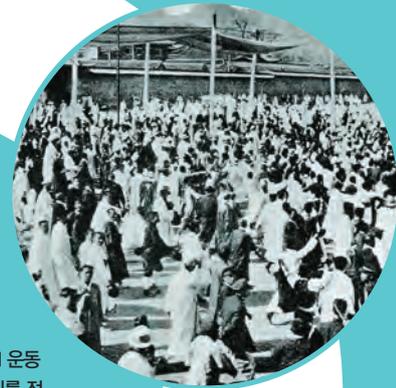
02

3·1 운동과 대한민국 임시 정부



▲ 남산 왜성대의 조선 총독부 청사(1910)

1910년 한국을 강점한 일제는 폭압적인 무단 정치로 한국인의 자유와 권리를 철저히 억압했어요.



▶ 3·1 운동(1919)

하지만 폭압 정치를 뚫고, 3·1 운동이 일어나 한국인의 독립 의지를 전 세계에 분명히 드러내었습니다.

내가 대한민국 임시 정부 요인이려면?



- (가) 활동 자금 모금
- (나) 열강을 상대로 한 외교 활동
- (다) 독립군 양성
- (라) 문화, 선전 활동
- (마) _____



▲ 중국 상하이의 대한민국 임시 정부 청사

그리고 대한민국 임시 정부가 수립되어 대한 제국을 대신하는 새로운 나라의 뜻을 올리게 되었죠.

Q

자신이 대한민국 임시 정부 요인이려면 어떤 활동을 하고 싶는지 (가)~(라)에서 고르거나 (마)에 자신의 의견을 쓰고, 그 까닭을 말해 보세요.

1 항일 비밀 결사와 국외 독립운동 기지 건설

한국인은 세계 속에서 대한민국(大韓國)의 이름을 간직하고 한국인이라는 지위를 계속 지켜 가기로 다짐하였습니다. 한국인의 과업이 아무리 어렵다 할지라도 자유에 이를 때까지 무기를 들고 일본과 투쟁할 것을 각오하였습니다. 한국인을 옹호해 주십시오. 한국인을 옹호함으로써 귀국은 정의를 옹호하게 되는 것입니다. …… 한국인은 자유를 위해 죽을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성명회 선언서, 1910—

●●● **주제 열기** 1910년 8월 23일, 일제의 국권 강탈이 임박하였을 때, 연해주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발표된 선언서이다. 8,000여 명의 애국지사가 서명한 이 선언서는 한국인의 결사 투쟁 각오를 밝히면서 열강에게 한국인의 투쟁을 지지해 줄 것을 호소하고 있다. 1910년대 자유를 위해 죽을 각오로 일어난 한국인의 독립 투쟁은 어떻게 전개되었을까?



● 성명회 선언을 주도한 이상설(왼쪽)과 유인석(오른쪽)

1910년대 민족 운동의 방향

일제가 한국을 강점하자 애국지사들은 독립을 쟁취하기 위한 최선의 방안을 모색하였다. 1910년대에는 의병 계열은 물론이고, 애국 계몽 운동 계열의 인사들도 대부분 독립 전쟁을 일으켜 일제를 몰아내고자 하였다. 그리하여 나라 안팎에서 독립군을 양성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다. 국내에서는 수많은 항일 비밀 결사가 활약하였으며, 해외에서는 독립운동 기지가 건설되어 장기적인 항일 투쟁의 토대가 마련되었다.

일제를 몰아낸 후 어떤 나라를 세울지 정하는 것도 민족 운동의 과제였다. 대한제국의 군주 체제로 돌아가 황제를 다시 세워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다. 하지만 대한제국의 멸망과 함께 군주 체제의 회복에 대한 기대는 약해진 반면, 황제의 주권이 국민에게 넘어왔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늘어났다. 이에 국민 주권에 바탕을 둔 민주 공화국을 수립해야 한다는 주장이 갈수록 확산되었다.

항일 비밀 결사가 조직되어 활동하다

국내에서는 무단 통치의 억압 속에서도 수많은 항일 비밀 결사가 조직되어 활동하였는데, 독립 의군부와 대한 광복회의 활동이 두드러졌다.

독립 의군부는 고종의 밀명을 받은 의병장 출신 임병찬 등의 주도로 결성되었다. 이 단체는 나라를 되찾아 고종을 복위시키려는 목표를 세우고 전국적인 의병 봉기를 준비하였다. 그러나 일제에 국권 반환 요구서를 보내려고 계획하던 중 조직이 발각되어 해체되었다.



● 임병찬

대한 광복회는 의병 계열과 애국 계몽 운동 계열의 비밀 결사가 통합하여 결성되었다(1915). 이 단체는 민주 공화국의 수립을 지향하였으며, 군대식 조직을 갖추고 국내 각지와 만주에 지부를 설치하여 독립군 양성에 노력하였다. 그러나 군자금 마련을 위해 활동하던 중 일제 경찰에게 조직이 드러나 해체되었다.

한편 규모가 줄었지만 의병 부대의 저항도 계속되었다. 마지막 의병장이라고 불리는 채응언이 지휘한 의병 부대는 1915년까지 서북 지방을 무대로 항전하였다.

만주·연해주 지역에 독립운동 기지를 건설하다

일제의 한국 강점 전후, 애국지사들은 국외로 망명하여 독립 전쟁을 준비하였다. 특히 지리적으로 가까운 만주·연해주 지역 일대에 독립운동 기지를 건설하여 장기적인 항일 투쟁의 거점으로 삼고자 하였다. 애국지사들은 그 곳에서 자치 단체를 만들어 독립군을 양성하였고, 학교를 세워 민족 교육을 실시하였다.

일찍부터 동포가 많이 이주한 북간도는 수많은 한인촌이 건설되어 지역 전체가 독립운동 기지나 마찬가지였다. 북간도의 애국지사들은 간민회 등 자치 단체를 만들어 동포 사회를 이끌었다. 북간도로 거점을 옮긴 대중교는 중광단이라는 무장 독립 단체를 만들었다. 이 단체는 3·1 운동 이후 북로 군정서로 발전하면서 무장 투쟁에 크게 기여하였다.

남만주(서간도)의 삼원보 일대에도 신민회의 계획에 따라 이회영, 이상룡, 김동삼 등을 중심으로 한인이 대거 이주하여 독립운동 기지를 건설하였다. 이곳에 설립된 신홍 강습소는 민족 교육과 군사 교육을 함께 실시한 대표적 민족 교육 기관으로, 독립군 사관을 양성하는 *신홍 무관 학교로 발전하였다.

국외 항일 의병의 중심지였던 연해주 지역에서는 블라디보스토크 교외에 신한촌이 건설되었고, 자치 단체인 권업회가 조직되어 동포 사회를 이끌었다. 권업회는 효과적인 독립 전쟁을 수행하기 위해 이상설, 이동휘를 정·부통령으로 하는 대한 광복군 정부를 조직하였다(1914). 그러나 일제와의 관계 악화를 꺼린 러시아가 한국인의 무장 활동을 금지하여 본격적인 활동은 어려웠다.

신로 특목

대한 광복회 강령

1. 부호의 의연금 및 일본인이 불법 징수하는 세금을 압수하여 무장을 준비한다.
2. 남북 만주에 군관 학교를 세워 독립 전사를 양성한다.
3. 종래의 의병 및 해산 군인과 만주 이주민을 소집하여 훈련한다.
7. 무력이 완비되는 대로 일본인 섬멸전을 단행하여 최후의 목적을 이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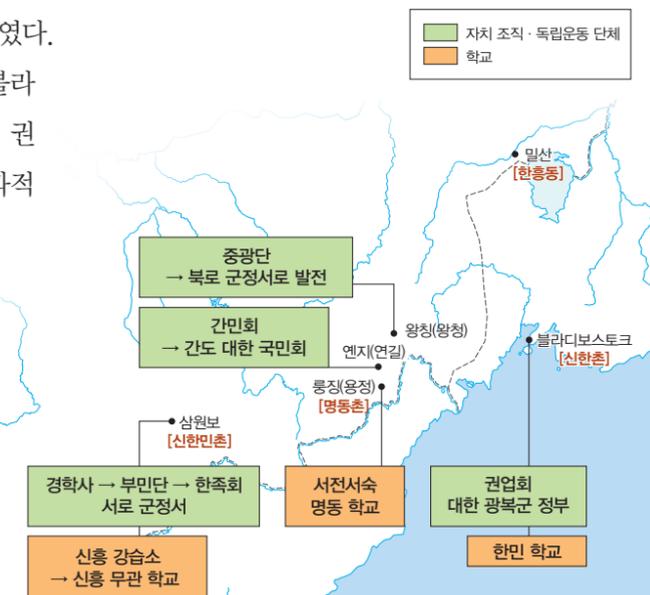


● 대한 광복회 총사령 박상진

* 신홍 무관 학교

신홍 강습소로 출발하여 신홍 중학교, 신홍 무관 학교로 발전하면서 폐교될 때까지 3,000명 이상의 졸업생을 배출하였는데, 이들은 무장 독립 전쟁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였다.

● 1910년대 만주·연해주의 독립운동 기지





▲ 안창호(앞줄 가운데)와 대한인 국민회 간부들

사료 토크

대한인 국민회의 신한국 건설 주장 *

이제 형질상의 '구한국'은 이미 망하였으나 정신상의 '신한국'은 바야흐로 시작하니 어찌 희망이 깊지 아니함이요? 그것은 단지 이씨 조선의 통치권이 끝난 것뿐이다. 이는 우리 국민으로 하여금 하나의 새 나라를 만들게 함이라.

- 「신한민보」, 1910. 10. 5. -

① 윗글에서 주장하는 새 나라의 형태는 무엇일까?

중국 관내와 미주 지역에서 전개된 독립운동

중국의 상하이, 베이징이나 미주 각지에서도 독립 전쟁을 준비하는 애국지사들의 움직임이 활발하였다. 이들은 일제에 맞서 직접 무장 투쟁을 전개하기는 어려웠지만, 중국과 미국 정부를 상대로 한 외교 활동과 군자금 모금 등에서 큰 역할을 하였다.

중국의 상하이에서는 신규식 등이 애국지사들을 규합하여 동제사를 조직하였다. 이 단체는 중국의 혁명 세력과 교류하며 독립운동에 대한 지지를 얻고자 노력하였다. 또한 여운형 등 동제사의 젊은 활동가들이 주축이 되어 신한 청년당을 결성하였다. 신한 청년당의 활동은 3·1 운동이 일어나는 데 영향을 끼쳤고, 대한민국 임시 정부 수립의 기반을 조성하였다.

미주 지역에서는 장인환과 전명운의 의거를 계기로 애국심이 고조되면서 한인 단체를 통합한 대한인 국민회가 결성되었다(1910). 이 단체는 공개적으로 민주 공화국 수립을 주장했으며, 동포 사회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아울러 만주·연해주에 지부를

를 설치하고 독립군에게 군자금을 모아 전달하는 등 항일 투쟁에도 큰 역할을 하였다.

한편 미주 여러 지역에서 무장 투쟁 단체들이 만들어졌다. 대한인 국민회의 유력한 지도자였던 박용만은 하와이에 대조선 국민군단을 조직하였고, 멕시코 이주 동포도 승무 학교를 세워 독립군 무관을 양성하였다.

② 군복을 입은 박용만



자료 시시백과 국외 독립운동 기지 건설의 의미는 무엇일까?

처음 도착하면 자치구에서 당번들이 나와 누구네 몇 가구, 또 누구네 몇 가구 하며 새로 온 사람들을 돌보게 한다. 만주 허허벌판은 이때부터 원웃 입은 우리 민족으로 허영게 덮여 갔다. 멀리서 서로 쳐다만 봐도 든든하였다. 이렇게 되자 애국지사들이 한인 자치 단체를 만들어 엄격한 규율을 세우고 학교도 세웠다. 일본에 빼앗긴 나라를 도로 되찾을 때까지 만주 땅에다 하나의 작은 나라를 만들어 운영한 셈이다.

- *허은, 「아직도 내 귀엔 서간도 바람 소리가」 -

'하나의 작은 나라를 만들어 운영한 셈'이란 무슨 의미일까? 해외 각 지역의 한인 자치 단체는 민족 교육과 한인의 법적 지위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등 독립된 자치 정부처럼 동포 사회를 이끌어 나갔다.

남만주 삼원보에 조직된 한족회는 삼권 분립의 원칙이 적용된 중앙 조직뿐만 아니라 동포 사회를 효율적으로 이끌어 가기 위한 지방 조직도 갖추고 있었다. 또 독립군의 양성과 작전을 담당하는 군정 기구를 설치하여 무장 독립 전쟁을 준비하였다. 이러한 기반 위에서 1920년대에 무장 독립 전쟁이 활발히 전개되었다.

*허은: 대한민국 임시 정부 국무령을 역임한 이상룡의 손주며느리이다.

이야기 더하기

이회영과 형제들의 노블레스 오블리주



▲ 이회영

8월 초에 여러 형제분이 모여서 같이 만주로 갈 준비를 하였다. 비밀리에 땅과 집을 파는데, 여러 집을 한꺼번에 처분하니 얼마나 어려우리오. 남편(이회영)은 옛날 범절을 따지지 않고 위아래 구분 없이 뜻만 같으면 악수하여 동지로 대접하였다. 1만여 석의 재산과 가옥을 모두 팔고 경술년(1910) 12월 30일에 큰집, 작은집이 함께 압록강을 건너 떠났다.

- 이은숙, 「민족 운동가 아내의 수기, 서간도 시종기」 -

이회영 형제들이 만주로 망명하면서 처분한 전 재산은 오늘날의 가치로 최소 600억 원에서 수천억 원에 이를 것이라고 한다. 이들은 이를 바탕으로 남만주 유하현의 삼원보에 신한민촌을 건설하고, 신흥 강습소를 만들어 무료로 운영하면서 민족 교육과 독립군 양성을 추진하였다. 척박한 땅을 손수 일궈 논밭을 만들었지만, 때로는 양식이 떨어져 끼니를 걱정해야 할 정도였다.

오로지 독립운동에 전념하다 보니, 이회영 일가가 겪은 희생과 고초는 이루 말할 수 없다. 이회영 자신은 일본 경찰에 체포되어 고문을 받다가 숨졌고, 그 형제들은 궁핍한 생활을 하다가 대부분 병사하거나 일가족이 몰살당하기도 하였다. 여섯 형제 중 유일하게 다섯째인 이시영만이 대한민국 임시 정부의 국무 위원으로 활동하다가 광복 후 초대 부통령을 역임하였다.

많은 애국지사가 있지만, 이회영 형제들처럼 온 집안이 전 재산을 쏟아부어 독립운동에 투신한 경우는 흔치 않다. 더욱이 이 집안은 당대 최고의 명문가이자 갑부였다.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고국에서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었다. 하지만 조국의 독립을 위해 안락한 삶을 포기하고 고난의 가시밭길을 걸어야 했다. 그리하여 우리 역사에서 노블레스 오블리주(높은 사회적 신분에 상응하는 도덕적 의무)의 귀감으로 우뚝 섰다.

활동 자신이 독립운동을 위해 국경을 넘는 일행 중 한 명이라면 어떤 결심을 했는지 글로 써 보자.